

2025 국악창작곡개발 - 제19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

2차 예선 심사 결과 발표

□ 심사개요

- 심사명 : <2025 국악창작곡개발-제19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 2차 예선 심사
- 심사일시 : 2025년 3월 1일(토), 10:00~18:30
- 심사장소 : 국악방송 12층 공개홀
- 심사내용 : 1차 예선에서 선정된 20곡의 실연 심사
- 심사항목 : 대중성(30%), 음악의 완성도(30%), 독창성과 창의성(20%), 국악적 요소의 반영(20%)
- 심사위원(5명)

이름(가나다순)	주요 프로필	비고
손다혜	- 제42회 대한민국작곡상 대상 수상 - 2024 KBS 국악대상 작곡상 수상	
송승중	- MBC 예능국 국장 역임 - <전주대사슴놀이 전국대회>, <나훈아 특별기획>, <서태지 컴백 스페셜>, <10대 가수 가요제> 등 연출	
오경자	- 국립극장 국악관현악단 악장 - 거문고 병창클럽 예술감독	심사위원장
이일우	- '잠비나이' 멤버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공연	
최지혜	- 2018 국립국악관현악단 상주 작곡가 역임 - 동국대학교 대우 교수	

□ 심사결과

- 총 10곡 선정 (노래곡 6, 연주곡 4)

참가번호	팀명	곡명	구분
1	JOYY	건드령	노래곡
5	차잔밴드	가녀린 아이	노래곡
6	판도라(PANDORA)	대장장이 신	연주곡
10	METALISM	낯고 녹슨...	연주곡
11	무던MU:DERN	무던히	노래곡
12	창작민속악그룹 '화온'	수류가(水流歌)	노래곡
15	삼산	21C 한국음악	노래곡
16	프로젝트 금	사(絲)물놀이	연주곡
17	오름새 프로젝트	떼루(Together)	노래곡
20	비랑(飛浪)	어둑시니	연주곡

※ 선정곡은 2차 예선 경연 순으로 기재하였음.

※ 본선 오리엔테이션 개최일 2일 전까지 실격, 자진 포기 등 선정된 본선 진출팀의 대회 참여가 불가능한 사유 발생할 시, 후순위 예비팀을 본선 대회 진출팀으로 함.

○ 주요 심사평

이름(가나다 순)	주요 심사평
손다혜	<p>각 팀들의 개성이 돋보이는 곡들이 많아 듣는 내내 즐겁고 흥미로웠습니다. 경연의 자리라 보완해야할 점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음악의 흐름을 조금만 더 다듬으면 손색없을 작품들이 많이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많이 감탄하였고, 또 작곡자로서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p> <p>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새롭게 창작하는 연주자분들의 진지한 태도와 훌륭한 연주가 작품에 잘 반영된 것 같아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p>
송승중	<p>이번 2차 예선 심사하면서 반가웠던 점은 대중성뿐만 아니라 작품성도 뛰어난 실험성이 강한 국악 창작곡이 많이 연주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색다른 악기 편성으로 다양한 음악 장르를 선보인 작품들이 많았는데, 우리의 전통음악에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한 세련된 작품들의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지만, 심사하는 동안 즐거웠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K-국악을 마음껏 펼치는 젊은 음악인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p>
오경자 (심사위원장)	<p>1차 예선을 거쳐 20팀의 2차 예선이 다양한 팀으로 이루어져 좋은 연주를 들을 수 있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보았습니다. 대중성을 가지며 창작과 완성도 있는 연주를 한 팀들과 새로운 시도를 한 팀에게 점수를 많이 주어 본선에 진출하게 평가하였습니다. 내년에 20주년을 기념하는 21c한국음악프로젝트를 기대하며, 수상하지 못한 팀들도 내년에 다시 도전하기를 바랍니다.</p>
이일우	<p>예전 21c 한국음악프로젝트 참가자들은 '어떻게 하면 대중적으로 어필이 될까'하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즐겁고 관객이 따라 할 수 있는 신나는 노래곡들이 그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곡들에 상을 수여 했기에 그러한 곡들 위주로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p> <p>올해 역시 많은 연주자들이 21c한국음악프로젝트에 응모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격상 대중성이 평가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대중성 보다 본인들의 색깔과 실험정신을 담아내려는 팀들이 많아 보여 반가웠습니다.</p> <p>물론 대중성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고 그에 부합하는 훌륭한 뮤지션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도 예전에 비해 많이 상향화되어 대중성 외에도 실험정신이 가득했으며 연주 또한 정말 훌륭했기에 단순히 대중성을 노린 팀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성숙한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일부 곡은 국악 카테고리를 넘어 일반 팝, 혹은 가요 분야에서 활약해도 좋을 곡들이 있었습니다.</p> <p>아쉬운 점이 있다면 점수 배분에 있어 대중성 부분에 점수가 많이 할당되어 대중성은 적어도 독창성이 확실한 팀에게 점수를 더 줄 수 없을 때가 있어 아쉬웠습니다.</p> <p>이처럼 많은 색깔을 가진 음악그룹이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국악연주자들의 치열한 고민들과 긴 시간 동안 국악연주자들에게 기회를 준 21c한국음악프로젝트의 발자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두 정말 멋졌고 수고하셨습니다.</p>
최지혜	<p>오늘 모든 곡들을 즐겁게 감상하였습니다. 심사의 관점으로 본다면 관객의 입장에서 곡을 들으며 관객들과 소통하고, 감동하는 음악은 어떤 음악일까에 대해 보다 중점을 두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오늘 참가자들 중에 몇몇 팀은 앞으로의 행보가 매우 기대되었습니다.</p> <p>한국 전통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젊은 예술인들이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통음악을 소재로 한 창작곡들의 생활화는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것을 즐기고 특히 음향과 악기의 개량에 관해 깊이 연구한다면 모두가 더욱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지않을까 싶습니다.</p> <p>21c한국음악프로젝트 경연대회가 거듭될수록 실력 있는 예술인들이 참여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p>

□ 향후 일정(안)

구분	일정 및 장소	비고
본선 진출팀 대상 '오리엔테이션' 진행 - 본선 관련 유의 사항 안내 - 본선 경연순서 추첨 - 음악감독 멘토링 및 음원 녹음 안내 - 프로필 촬영 이미지 디렉팅 및 일정 협의 - 기타 대회 준비 사항, 일정 등 안내	3/11(화) 15:00 / 국악방송 대회의실	본선 진출팀별 대표 1인 이상 참가 필수
프로필 사진 및 영상 촬영	3월 중순 / 외부	
본선 진출팀 대상 음악감독 멘토링 진행	3월 중순 / 국악방송	
음원 녹음	4월 초 / 외부 스튜디오	
라디오 방송 출연	4/28(월)~5/2(금) (예정) / 국악방송	
본선 (실연 심사 / 공개)	5/15(목) 19:00 / 국립국악원 예약당	TV, 라디오, 유튜브 생방송

※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및 내용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처

- 국악방송 21c한국음악프로젝트 운영사무국 (02-300-9973 / 21cproject@igbf.kr)